



박소현의 섹.시.토크

K는 며칠 전부터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왔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남편도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모른 척 기다려 봐야지.’

크리스마스 이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남편에게선 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24일 아침, 결국 K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 오늘 뭐 해?”, “뭐 하나?”

“크리스마스이브잖아. 아무 계획 없어?”

남편은 약간 당황하는 듯 보였다. “이브에 데이트하는 건 연인들 료이야. 우리 결혼했으니까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지.”

서운함이 뭉뚱하게 밀려왔지만 이해하기로 했다. “그래, 길도 막히고 어디 들어가도 비싸니까 집에 있는 게 낫긴 낫지. 그럼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 놓을 테니까 집에서 오붓한 시간 보내자.”

남편도 그러겠다고 했다. K는 오전부터 장을 봐 케이크도 굽고 음식도 만들었다. 사람들에게 치이다 들어와 꿀아떨어지기보다는 집에서 분위기 있는 밤을 보내는 게 훨씬 일인것 같았다.

결혼한 지 이제 10개월이지만, 부부관계는 문제가 있었다. 늘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주에 한번이던 잠자기가 한 달에 한 번이 됐고, 그마저도 12월 들어서 망년회다 뭐다 하며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밤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저녁 준비 해놨단 말야.”, “다들 맥주 한 잔만 하자고 불잡는데 어떡해. 차 가져 왔으니까 분위기만 맞춰주고 일어날게. 배 고프면 먼저 먹든지.”

8시 즈음에 전화는 다시 걸려왔다. “곧 출발해. 그런데 같이 엄청 막히네. 자기 만

저 저녁 먹어. 난 안주 먹어서 배 안 고프.” 10시를 넘자 K가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고래고래 고함부터 질렀다. “불황은 무슨 불황, 다들 길거리에 물려나와서 차가 꼼짝도 안 해!”

“우리 오늘 뭐 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이브에 데이트하는 건 연인들 료이야”

결국 남편이 집에 도착한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 있었다.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세수도 않고 침대로 뛰어 들었다.

“그냥 잘 거야?”, “피곤해 죽겠어. 왜 다들 물려나와 그 지옥을 만드느니...”

몇 분 지나지 않아 코를 골기 시작한다. 어이도 없고 화도 나서 K는 문을 광 닫고 나와버렸다.

지독하게 고요한 밤

식탁에 처러둔 음식을 보니 눈물까지 날 것 같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뭐하니? 남편 왔어?” 먼저 결혼한 친구였다. “방금 들어와서 뵈었어.”, “그래도 네 남편은 들어오긴 했구나. 올 남편은 감감무소식이야.”

“길에서 갇혔대?”, “갇히긴 무슨, 어디서 술 퍼마시고 있었지. 너도 일찌감치 기대를 버려.”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은 더 우울해졌다. 연애 시절엔 이브를 같이 보내려고 호텔까지 예약하던 남편이 아니었던가. 그땐 인파에 휩싸여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니 이런 지옥이구나. 연애와 결혼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때가 명절과 기념일이라는 말이 절대 동의하지 않았던 자신이 바로였다.

지금 전국의 숙박업소를 모두 채우고 있을 수많은 연인들에게 갑자기 맹렬한 질투도 끓어올랐다. 바로 같은 생각 집어치우고 잠이나 자야겠다고 일어서는데, 어느 집에선가 가족이 함께 부르는 캐럴이 아득하게 들려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물린 밤...” 세상이 얼마나 떠들썩하던 간에, K에게는 말 그대로 지독하게 고요한 밤이 흘러가고 있었다.

〈연애 칼럼니스트〉

리빙 센스

겨울철 입술관리

1. 꿀 입술이 터서 피가 날 때에는 보습 효과에 좋은 꿀을 미지근하게 데워 입술에 바르고 랩으로 덮어준다. 20분 정도 지난 뒤 랩을 떼어내고 스킨 타월로 닦아낸다.

2. 화장솜 사용 티슈로 립스틱을 문질러서 닦아내거나 비누로 지우는 일은 금물. 립 전용 리무버를 화장솜에 묻혀 입술 주름 속과 주변 라인까지 깨끗하게 닦아낸다.

3. 각질 관리 무리하게 손으로 뜯어내지 말고 스킨타월로 불린 후 살살 떼어낸다. 각질을 제거 한 후 에센스나 영양 크림을 발라 수분과 영양을 공급한다.

4. 입술 전용 에센스 입술이 갈라지고 각질이 일어날 때에는 립크림, 영양 크림, 에센스 등을 중이나 약지를 이용해 가볍게 마사지하듯 발라준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2월 26일(음 11월 29일 庚子)

36년생 가계는 국가 경제로 통하니 집안을 잘 다스리라. 48년생 가득 찬 창고도 모두 내 것은 아니다. 60년생 가정의 힘은 식탁에서 나온다. 72년생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84년생 계획한 일은 잘 이루어지리라 걱정할 말라. 행운의 숫자: 07, 40

37년생 남을 높이면 자신도 올라간다. 49년생 마음의 고통은 있으나 가정은 평안하다. 61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해라. 73년생 모든 일에 불편이 있으니 처신을 잘하라. 8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08, 37

38년생 방풍림은 여자가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 50년생 보기 좋은 띠이 먹기도 좋다. 62년생 부부사이에 이해없는 대화와 사랑스런 자녀를 살펴보라. 74년생 새 문서를 친구가 가져오나 검토는 자세하게 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09, 36

39년생 세상에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은 없다. 51년생 수하인과의 동업은 절대 금하라. 63년생 어려워 보여도 쉽게 해결난다. 75년생 독심은 화를 부르니 소탐대실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14, 38

40년생 이성 보다 친구를 만나야 좋으리라. 52년생 이웃을 살펴보라. 64년생 정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울 뿐이로다. 76년생 좋은 협력자를 만나 큰 도움을 받는다. 행운의 숫자: 17, 29

41년생 집안은 평안하고 집 밖은 시끄럽다. 53년생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 65년생 파도가 높으니 대고가에 상한다. 77년생 허황된 문서만 조심하면 대수는 없다. 행운의 숫자: 21, 25

42년생 고개를 숙여서 땅을 한번 살펴보라. 54년생 과욕만 없으면 결과는 좋으리라. 66년생 구사가 파롭하나 큰 일은 아니다. 78년생 눈을 조금만 낮춰서 현실을 보라. 행운의 숫자: 01, 35

43년생 독심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 55년생 말다툼이 송사료 비화 될 수도 있으니 빨리 감정을 정리하라. 67년생 미운 사람과 좋은 사람이 생긴다. 79년생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온다. 행운의 숫자: 03, 45

44년생 삼사일언하면 마음은 없으리라. 56년생 신사나 헛된 문서에 속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68년생 아늑한 보금자리나 불편한 사람이 같이 있다. 80년생 애인이 불안하다. 행운의 숫자: 04, 43

45년생 옛 감정은 빨리 털어버리면 새로운 것이 찾아온다. 57년생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69년생 외부의 일이 가정에 까지 소란사로 변하니 세심하게 살펴보라. 81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진다. 행운의 숫자: 05, 26

46년생 자녀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58년생 자신과 가정과 직장사이에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70년생 직장을 포로로 잡은 격이니 큰 상이 있을 수 있다. 82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신사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18, 32

47년생 착실한 전진으로 꼭 성취될 것이다. 59년생 처음에는 고풍스러우나 나중은 편하리라. 71년생 하루가 평안하니 주위를 둘러보라. 83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일을 추진해간다. 행운의 숫자: 24, 25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크리스마스엔 역시 '나홀로 집에' 크리스마스의 열기는 인터넷 세상에서도 이어졌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단어가 검색어 순위를 장식했다. 크리스마스 선물, 캐럴, 특집 영화, 불만찬 영화,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 네티즌의 관심사는 온통 한겨울의 설레는 크리스마스였다. 크리스마스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검색어 '나홀로 집에'도 역시 인터넷 순위에서 등장했다. 그라운드의 악동 이천수도 검색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천수는 소속팀 프로축구 수원 삼성이 프로축구연맹에 임의 탈퇴 공시를 요청하면서 퇴출위기에 몰렸다. 이천수는 지난 11월 말 특별한 이유 없이 팀 훈련에 불참하고 차범근 감독의 재할 훈련 지시에도 따르지 않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동물들도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얼마 전 '환관'과 '위안위안'이라는 판다가 대만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 판다는 중국이 대만과의 관계 개선 정책의 하나로 보낸 것으로 중국 국민 1억 7천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름을 지어줘 눈길을 끌었다. 또 환경에 민감한 판다의 수송을 위해 특별히 온도와 습도 장치까지 갖춘 전세기가 투입돼 화제가 됐다. 국내에서는 호랑이가 인기 검색어에 등장했다. 지난 17일 수컷 사자가 암컷 호랑이를 물어 죽이면서 뉴스에 오르내렸던 전주동물원에 새 호랑이가 살립을 차렸다. 전주동물원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다량취원 원숭이 한 쌍을 주는 대신 시베리아산 호랑이 '수호'를 트레이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립뉴스

통렬한 침입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일부분 결승 5보(74~89) 白 송홍석 7단 (경기) 黑 이상현 6단 (서울) 흑 75로 이은 수가 초강수로 이상현의 승부수였다. 이 수로는 84에 누는 것이 정수로 무난했는데 아예 점수 차를 벌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필히 반발을 부른다. 더구나 상대는 한창 상승세에 있는 아마최강 송홍석이다. 즉각 백 76으로 태도를 엿보더니 아니나 다를까 백 78로 통렬하게 폐부를 찌러온다. 우려하기는 했으나 당하고 보니 아프다. 흑 79를 생각할 수 없을 때 백 84로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런데 백 84가 소극적인 수로 이 수로는 '참고도 1'의 백 1로 돌 곳. 흑 2면 3으로 잡아 크다. 또 '참고도 2'의 흑 2로 두면 5까지 선수한 다음 9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 실전보다 훨씬 우세하다. 흑 89가 강력한 반발이다. <오규철 9단·본보 비독 해설위원>

Table with 4 columns: Englis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Each column contains a phrase and its translation/usage examples. The columns are: 1. I almost forgot them. / I almost forgot them. / 他是我的朋友. / 他是我的朋友. / 攫金者 不見人. / 攫金者 不見人. 2. ... 3. ... 4. ...